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59)(4/29/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8 장 외적인 일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위험한 일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함, 2 절

요 14:1-3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롬 12:12 -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렘 33:2-3 -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눅 12:20-21 -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 따라서 네가 모든 일에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고집하지 않고, 육신의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들에만 집착하지 않으며, 무슨 일에서든지 모세와 함께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너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현재와 장래의 많은 일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런저런 의심과 의문이 생길 때에나, 위험에 처한 때에나, 사람들로부터 해악을 입게 될 우려가 있을 때마다 늘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였다. 이렇게 너도 네 마음의 골방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된 충성맹세에 속아 넘어간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의 겉만 번지르르하고 듣기에 그럴 듯한 말을 너무나 경솔하게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말씀과 해설:

영적 자유자는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며 바라보며 산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자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영적 자유인은 육적인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영적 세계로 이미 들어가 경험하며 그 세계 속을 여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요 14 장에서 이제 육신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 없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했다. **요 14:1-3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요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앎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곳으로 옮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롬 12:12 -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롬 15:13 -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영적 자유자는 자신의 자유와 소망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를 느끼며 확신하게 하고 절망이 스며드는 마음에 다시금 소망이 샘솟게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시 66:19 -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렘 33:2-3 -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내어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삼상 1:10, 19-20).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이 15 년이나 연장되는 은혜를 주셨다(왕하 20 장).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는 성도들이 육적인 세계에 살지만 이미 영적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영적 자유자는 삶의 현실 속에 위축되지 않고 돌파할 수 있으며,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며,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구하고, 이 땅에만 무엇을 쌓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 눅 12:20-21 -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골 1:12 -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참된 영적 자유자로서 기도와 소망 가운데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에 보화와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언제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길을 다니는 영적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의 조국이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3. 커네티컷에 영적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